

만19~34세, 5년간 매월 70만원 넣으면 5000만원 ‘목돈’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자

정부 매월 2.1만원~2.4만원 기여금 구간별 소득 낮을수록 많은 지원 병역이행 기간, 나이 계산 미산입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들은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서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이하		-	-	-

자료/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정부가 매달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취급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

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

만 받을 수 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에는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나 만기 후 가입”

금융위 일문일답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나온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8만8000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300만명의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질의응답.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올해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 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나 만기 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한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나?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황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부자는 ‘홍콩’을 좋아해… 초고액자산가 1.5만명 거주

● 차이나 뉴스&리포트

슈퍼리치 가장 많이 사는 곳 ‘홍콩’ 아시아 1위, 전세계 3위

아시아에서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홍콩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베이징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8일 글로벌 인력정보업체 알트라타(Altrata)에 따르면 홍콩에는 순자산 미화 3000만달러(한화 약 39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UHNW) 1만517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다.

아시아 2위는 베이징으로 슈퍼리치



홍콩 빅토리아 하버. 홍콩은 아시아에서 초고액자산가(UHNW)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1위를 차지했다. /AP·뉴시스

8923명이 거주했으며, 싱가포르는 7471명으로 3위로 밀렸다.

이번 조사는 세계 각지의 슈퍼리치

를 거주지별로 계산한 웰스(Wealth)-X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전 세계 인구 80억명 가운데 약 40만명만이

초고액자산가 그룹에 속했다.

전 세계에서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뉴욕으로 2만1714명이며, 런던이 1만590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1위 홍콩이 전 세계 기준으로는 3위로 런던을 바짝 뒤쫓았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확실성과 팬데믹으로 매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슈퍼리치가 살기 가장 좋은 도시다.

알트라타는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연결성이 독보적이고, 초고액자산가들에게는 낮은 세금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며 “홍콩 거주자 351명당 1명이 슈퍼리치로 밀도로만 보면 뉴욕보다 3배가 넘는

세계 최고 부자 도시”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방역정책 완화 이후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7년 동안 거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때 내야 했던 부가세금을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250만 홍콩달러(한화 약 4억2000만원)인 개인과 최소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세계 100대 대학 졸업생에게는 2년 짜리 취업 비자를 내 주기로 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미국 도시들이 상위 20위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의 중심지로 꼽히며 뉴욕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